

南北韓 貿易成果指數 比較로 본 經協方案 考察

延 河 清

1990년대 中盤期間은 南韓 內部的 經濟先進化와 政治·社會의 持續的 發展與否가 關及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民族 全體的으로는 南北韓間 民族共同體의 形成과 統一의 實現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民族經濟共同體 形成을 위한 南韓의 확고한 對北韓 經濟政策 樹立은 물론 南北韓間의 經濟關係 또한 短期的·商業的 利益보다는 長期的 觀點에서 「統一韓國」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統一民族의 經濟的 福利를 極大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本稿에서는 最近 北韓의 對西方 外資誘致努力 및 貿易擴大政策 등 開放化 政策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한 후, 향후 「南北基本合意書」의 內容이 具體的으로 실현되고, 특히 南北韓間 直交易이 정착될 경우 南北韓間 交易擴大와 合作投資를 비롯한 經協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南北韓의 對OECD 貿易資料 分析을 통해 얻은 顯示比較優位指數(RCA)와 貿易特化指數(TSC)를 이용, 南北韓間 交易 및 經協 擴大·發展의 일환으로서 南北韓間 交易可能品目 및 經協有望分野를 선정·제시하였다.

I. 序 論

현재 進行되고 있는 南北韓 經濟協力關係

筆者: 本院 北韓經濟研究센터 所長

* 本 研究의 草稿에 대하여 귀중한 論評을 주신 本院의 全洪澤, 高日東 博士께 감사드리며, OECD 貿易資料의 分析에 도움을 준 金炯元 主任研究員께도 감사드린다. 그러나 本 研究 結果에 나타난 어떠한 見解나 誤謬도 筆者 個人的 것임은 당연하다.

는 北·日, 北·美 關係改善與否 및 北韓 內部的 變化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對內外的인 與件을 고려할 경우 長期的으로는 北韓의 對外開放, 南北經協의 發展 可能性이 예상되지만 일정기간 南北經協이 정체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南韓의 경우에는 北韓이 漸進的이고 肯定的인 方向으로 변화하는 경우이든, 극적으로 붕괴되는 경우이든 北韓의 變化가 향후 國家發展

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北韓體제의 돌연한 붕괴는南韓의 經濟的·政治的 力量으로 보아 남한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로 인한 經濟的 危機는 政治·外交側面에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國家發展戰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즉北韓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마련 및 경제적·정치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統合過程을 조정할 수 있는 具體的인 政策樹立의 事前的 準備가 필요하다.

南北韓의 統一을 위한 最善의 方法은 對話와 交流·協力을 통해 南北韓間 對決構造를 平和構造로 전환하고 異質化된 民族社會의 同質性을 회복하여 民族經濟·社會共同體를 形成·發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統一國家를 수립하는 平和的 統一方案이다.¹⁾ 統一論議에 있어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사항은 統一方法으로, 이에 따라 통일된 國家의 形態가 규정될 뿐만 아니라 統一된 國家의 發展可能性도 결정되므로 統一은 平和的·

1) 現 우리 政府의 統一進出構圖는 和解·協力 段階→南北聯合段階→1民族·1國家의 統一國家 完成段階를 거쳐 統一을 달성시키는 「3 段階 統一方案」으로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1989. 9)의 基本骨格을 살리며, 南北韓間 「基本合意書」(1991. 12)에서 합의된 和解·協力の 約束을 함께 수용한 것으로 漸進的이고 段階的 立場에서 民族社會의 統合努力을 통해 統一國家를 실현시키는 것이다(統一院 情報分析室, 『週間北韓動向』, 第140號, 1993. 8. 29~9. 4, pp.10~13 참조).

民主的인 方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최소한의 前提條件이다. 즉 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統一의 意味는 韓民族의 厚生 福祉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南北韓이 하나가 되어 政治的 民主化와 함께 經濟的 繁榮, 그리고 文化的 成熟과 社會的 一體感을 이룬다는 것이지 統一 그 自體가 최종적인 目的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世紀가 시작되는 2000년을 내다보면서 南北韓 經濟關係 發展의 政策課題는 韓民族 經濟·社會統合과 관련하여 예견되는 對內外 與件과 環境의 變化를 점검하고 南北韓 經濟協力の 擴充과 民族共同體 形成의 段階別 接近方案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南北韓 關係改善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國際情勢의 急激한 變化에 따라 統一에 대한 關心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南韓은 지난 30여년 동안 經濟·社會發展을 꾸준히 추진해 오으로써 經濟·社會의 先進化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分斷克服을 위한 內部力量이 성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際環境 또한 호전되고 있다.北韓은 전세계적인 社會主義의 崩壞와 심각해지는 經濟難으로 開放이 不可避해짐에 따라 최근 「南北基本合意書」發效(1992. 2) 등을 통해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도 關心을 보이고 있다.

물론北韓이 최근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 關心을 나타내는 理由는 南北韓 經濟協力を 통해 實質的인 利益을 얻는 데에도

있겠지만 伸縮的인 南北韓關係를 維持함으로써 北·日 修交와 北·美 關係改善의 有利한 與件을 造成할 必要性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北韓은 최근 러시아·東歐의 體制轉換으로 기존의 對外經濟關係가 붕괴되고 食糧難·에너지難 등이 가중되어 심각한 經濟危機를 맞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美國, 日本 등 西方國家에서 새로운 經濟協力相對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北韓의 사정으로 볼 때 아직까지 北韓이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 임하는 立場은 當面問題의 解決을 위한 戰略의 次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 단지 民族經濟共同體를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는 각오로 차분하게 南北韓 經濟協力の 實踐의 方案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經濟協力 增進과 이를 통한 民族의 同質性 回復은 統一國家 實現의 基盤으로서 統合된 單一經濟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할 수 있는 方法일 뿐만 아니라 異質化된 經濟의 統合過程에서 수반되는 混亂과 費用을 최소화하고 統一經濟의 長期發展 基盤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南北韓 經濟協力 및 共同體의 推進에 있어서 基本的인 原則은 통합의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混亂과 苦痛을 최소화하고 통합후 民族繁榮을 이룩하기 위해서 經濟·社會 각 분야의 異質性을 漸進的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理論的으로 經濟統合은 自由貿易地域, 關稅同盟, 共同市場,

經濟同盟, 完全經濟統合의 順序로 發展段階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分斷 以後 南韓의 經濟體制는 市場經濟-分權體制-經濟的 誘引의 構造로 發展해 온 반면 北韓의 經濟體制는 命令經濟-集中體制-社會主義 規範의 構造로 발전되어 왔다. 이와 같이 異質的 經濟體制를 갖고 있는 南北韓間에는 經濟統合의 一般的인 論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南北韓 經協은 短期的인 經濟的 利益의 追求라는 次元에서보다는 中·長期的으로 南北韓 經濟統合의 實現이라는 次元에서 南北韓 同質性 回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基本的인 전제이다.

南北韓 經濟交流의 基本目標은 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基盤을 조성함으로써 統一民族의 福利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차 活性化가 예상되는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推進은 交易段階, 資本·技術協力段階, 經濟統合段階, 經濟統合 以後 南北韓 產業構造 調整段階 등 전체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長期的 視角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民族共同體의 回復에 따른 經濟的 效果는 매우 크다. 즉 市場規模의 擴大에 따른 規模의 經濟效果와 南北韓 공히 軍事費의 經濟用途 轉換에 따른 投資擴大效果 및 賦存資源과 人力의 共同利用에 따른 「시너지」(synergy)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다. 이와 같은 人的·物的 交流를 통한 民族共同體 回復은 統一韓國이 東北亞에 있어서 강력한 經濟單位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한편 南北韓 經濟共同體는 이를 위한 形式과 制度가 먼저 갖추어진 다음에 내용이 차츰 채워져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될 社會的 費用을 어떻게 축소시킬 것인가가 南北韓 經濟共同體 推進의 主要課題로 대두될 것이다. 社會的 費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民族經濟共同體 形成 以前の 經濟交流過程, 즉 直·間接交易, 經濟協力段階에서도 民族經濟共同體를 고려한 段階別 措置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南北經濟共同體의 推進은 經濟共同體 以前 및 以後의 段階들을 有機的으로 결합할 수 있는 方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南北韓間에 實益이 있으며 調整이 可能的인 部門을 선정하고 이들 부문에서의 經濟·社會同質化를 심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經濟·社會同質化 對象 部門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方式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南北韓 民族經濟共同體의 經濟體制를 어떤 형태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市場機構에 의한 資源配分 및 開放經濟 등과 같은 基本的인 事項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市場經濟體制의 矛盾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社會保障制度 등이 강화된 형태가 民族經濟共同體의 經濟·社會 모습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II. 北韓의 經濟開放政策과 그 限界

최근 社會主義國家들의 커다란 變革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여전히 中央集權的 計劃經濟下에서 閉鎖的인 政策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國際情勢와 가증되는 經濟難, 그리고 金日成 以後 權力移讓의 不透明 등 體制內的 矛盾의 增大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지의 變化가 不可避한 形편이다. 또한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開放·改革이 國際社會에서 하나의 普遍的 價値가 된 상황을 북한이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中國, 러시아 등 過去 社會主義 同盟國들도 北韓으로 하여금 開放·改革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對外的으로는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이 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 가장 크게 의존하여 왔던 舊蘇聯의 解體로 北韓의 對外經濟基盤이 거의 崩壞된 상태이다. 또한 中國으로부터도 충분한 經濟的 支援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北韓은 현재 西方國家에서 새로운 經濟協力相對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입장에 있다.

1. 部分的인 經濟開放

北韓이 開放化 趨勢에 따라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資本不足, 技術 및 生産施設의 落後로 인한 經濟沈滯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돌파구가 없다. 둘째, 러시아를 비롯한 社會主義圈의 改革·開放化로 기존 經濟協力基盤이 崩壞된 상태에서 北韓은 필요로 하는 最小限의 經濟·技術交流을 위해서도 지나치게 閉鎖的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權力의 父子繼承面에서 카리스마와 정통성이 약한 金正日의 政治的인 安定을 위해서도 開放化를 통해 經濟를 활성화시켜 民心을 얻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北韓은 社會主義經濟의 內在的 矛盾으로 인한 經濟의 效率性低下 및 限界生産性遞減, 그리고 共產圈 體制轉換에 따른 海外市場의 喪失과 經濟協力體制의 崩壞로 인한 長期的인 經濟成長의 沈滯, 住民生活의 窮乏 등 經濟的 矛盾이 심화되고 있어 體制變化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 北韓의 러시아로부터의 原油輸入은 1987년까지 80萬~100萬톤에 달했으나 1990년 41萬톤으로 減少하였고, 러시아의 北韓에 대한 輸出에 있어서도 國際價格보다 낮은 價格을 적용하던 友好價格制度를 폐지하고 國際價格에 의한 硬貨決濟를 결정한 1991년에는 4.2萬톤規模로 격감하였으며, 1992년에는 불과 3萬톤으로 축소되었다(日本 『마이니치(毎日)新聞』, 1991년 12월 1일자 및 大韓貿易振興公社, 『북한투자실무』, 1993, p.14 참조).

北韓經濟는 主體經濟의 극단적 폐쇄성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1980년대에 들어와 成長勢가 현저히 둔화되어 經濟成長率이 1970년대의 절반 이하인 3%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構造的 問題와 함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對外交易體系가 붕괴함에 따라 第3次 7個年計劃(1987~93) 期間中 産業稼動率이 50% 水準을 밑돌고 그 결과 3년 연속 負의 成長(1990년 -3.7%, 91년 -5.2%, 92년 -7.6%)이 지속됨으로써 長期的인 經濟危機段階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北韓經濟에 劃期的인 經濟改革措置가 없을 경우 앞으로도 이러한 經濟成長率의 低下趨勢는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社會主義圈의 經濟改革·開放化에 따라 北韓의 最大交易國인 러시아·中國(1989년 北韓 總交易의 61.4% 점유)이 北韓에 대한 經濟協力政策을 修正함에 따라 北韓의 經濟難이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는 國內 經濟改革과 함께 共產圈國家와의 貿易에 있어서도 종래의 ‘友好價格’을 폐지하고 國際價格에 의한 硬貨決濟를 公表함으로써 貿易의 5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여 온 北韓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미 1989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北韓에 대한 石油輸出의 減少로 北韓은 심각한 에너지難에 따른 産業施設稼動率의 低下를 겪고 있다.²⁾ 한편 러시아의 公산주의 포기 및 聯邦解體로 北韓의 中國에 대한 依存度가 높아지겠지만 근본적으로 中國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가 對

北韓 援助性交易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또한 북한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북한이 침체된 經濟를 회복시키고 經濟運用의 效率性を 제고하기 위해서는 經濟管理體制의 대폭적인 改革과 함께 經濟開放을 통한 資本과 先進技術의 導入이 필수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經濟의 開放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財貨, 서비스, 資本, 技術 등의 交流와 協力を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經濟의 開放化는 對內的으로는 分權化된 市場經濟의 要素를 도입함으로써 資源配分の 效率性を 높이며, 對外的으로는 國際分業과 經濟協力を 통하여 經濟的 利得을 얻는 데 目的이 있다.

그런데 北韓의 經濟運用은 自給自足の 性格을 갖기 때문에 外國과의 經濟交流와 協力を 단지 國內經濟의 補助的 機能으로 취급함에 따라 經濟의 效率性を 높일 수 있는 對外的 要因을 차단시켜 왔다. 더욱이 對內的으로는 意思決定 權限의 과도한 中央集權化, 經濟計劃 樹立의 原始的 方法, 經濟的 인센티브의 缺如, 創意性的 不在, 經濟에 대한 政治의 優先 및 干涉 등의 결함으로 全般의 經濟沈滯를 가져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날 社會主義國家들은 서둘러 改革과 開放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3) 1984년 9월 合營法 發表 이후 1992년말 현재 까지 北韓의 對外合作投資 國內誘致件數는 輕工業, 서비스業, 農水産物을 중심으로 약 140여건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90% 이상이 朝總聯系 日本企業에 의한 投資로서 總投資規

여기서 유의할 것은 北韓經濟에 적용할 수 있는 改革과 開放에 관한 概念上的 問題이다. 우선 北韓의 改革이란, 私有財產權을 인정하여 分權化된 市場經濟體制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生産과 消費의 經濟的 效率을 높이기 위한 目的으로 動機誘引(incentive)의 制度的 裝置를 각 經濟部門에 선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우리식 社會主義의 建設’을 내세우며 社會主義的 原理原則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生産手段의 所有에 있어서 資本主義를 생산케 하는 個人所有로는 회귀시킬 수 없다는 것과 市場調節機能을 도입하지 않고, 물질 자극보다는 정신·도덕적 자극을 보다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이 추구하는 變化의 概念인 民主概念, 市場概念, 多元主義概念이라는 것은 아직 北韓의 社會主義體制에서는 고려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北韓의 經濟開放政策 推移를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북한은 1984년과 1985년에 각각 「合營法」과 「合營法施行細則」 등을 채택, 西方의 資本 및 先進技術 誘致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西方國家들의 北韓에 대한 合作投資는 북한의 對外信用 및 採算性 問題, 合營企業을 保護할 수 있는 法的·制度的 裝置의 未備, 그리고 自力更生의 閉鎖經濟와 社會間接資本의 落後 등으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³⁾ 북한

의 貿易擴大, 특히 최근 북한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輸出增大努力도 북한이 지금까지 지속해 온 對內指向的 工業化를 目標로 한 輸入代替 發展戰略에서 輸出規模의 擴大와 輸出産業의 高度化가 國內 工業化의 促進과 직결되는 對外指向的 發展戰略으로의 근본적 전환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이는 다만 外債를 償還하기 위해, 그리고 經濟的 沈滯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西歐의 資本 및 先進技術을 계속 도입하려는 北韓 指導層의 의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北韓은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이 최근 積極的인 開放體制로 轉換, 價格機構와 私有財産制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市場經濟模型으로의 轉換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단지 선별적으로 外國資本과 技術 두가지만을 들여오는 데 집착하고 있는 不完全한 經濟開放政策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中盤 以後 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北韓經濟로서는 不足한 原料 및 資材의 圓滑한 供給뿐만 아니라 老朽化된 技

術 및 産業施設의 現代化를 위해 輸入增大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한 資金確保의 必要성과 점차 가중되고 있는 債務의 辨濟를 위해 輸出의 重要性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다. 北韓은 第3次 7個年計劃(1987~93)에서 貿易額의 增加目標를 社會總生産의 增加目標 1.8배를 훨씬 상회하는 3.2배로 책정한 바 있다. 특히 輸出産業의 育成을 위해 輸出品 生産基地의 設立과 輸出商品의 專門化·多樣化에 力點을 두고,⁴⁾ 國交樹立을 포함한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新興工業國뿐만 아니라 東南亞 國家들과의 經濟協力 增進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北韓이 國際聯合開發計劃(UNDP)과의 協力으로 함경북도 청진, 나진, 선봉 일대를 自由經濟貿易地帶로 設定, 中國式 經濟特區運用 體驗 및 成果를 토대로 비록 制限的이나마 開放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外國의 合作投資 誘致 및 러시아·中國·蒙古 등과 日本·東南亞를 연결하는 大規模 中繼貿易基地로 建設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北韓은 合營法을 근간으로 한 기존의 법령만으로는 外資誘致가 어렵다고 판단, 1992년부터 1993년에 걸쳐 대대적인 開放法令 制定에 나섰다. 北韓은 西方의 外資誘致를 法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10월에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과 「合營法施行細則」을 개정·보강하였으며,

模는 2億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大韓 貿易振興公社, 前掲書, 1993. 6, pp.129~130 참조).

4) 한수길,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 나서는 절실한 요구」, 『근로자』, 평양, 1991. 4, pp.68~71 참조. 北韓은 1980년대 中盤에 착공하여 1990년대 초 완공예정인 南浦輸出地域 建設에 착수한 바 있는데, 南北韓이 合作投資 豫定地로 南浦地域을 거론한 바 있다.

〈表 1〉 北韓의 經濟開放政策 推移

I. 1970년 前後

〈對內外情勢 및 課題〉

- 中·蘇의 經濟援助 감소
 - 對西方交易 필요성 증대
 - 南韓經濟의 고도성장
- 6個年計劃(1971~76)의 목표달성

〈主要政策〉

- 日本 및 西方先進國으로부터 대규모의 資本과 技術·設備 導入
 - 1974년 對OECD輸入이 總輸入의 51.7%로 증가

〈主要 經濟協力 對象國〉

- 기존의 蘇聯·中國 외에 日本 및 西方先進國으로 확대

II. 1975년 이후~1980년대말

〈對內外情勢 및 課題〉

- 對外貿易 필요성의 가증
 - 지속되는 對西方 債務償還의 어려움

〈主要政策〉

- 對外貿易의 중요성을 公式적으로 강조(1979년 金日成 新年辭)
- 社會主義國家 중심의 貿易(특히 輸出) 강조
 - 1980년대말까지 輸出額 4.2배 확대(1980년 朝鮮勞動黨 第6次 大會)
 - 향후 5~6년 사이에 對社會主義圈 貿易을 10배로 확대(1984. 1 最高人民會議)
 - 第3次 7個年計劃(1987~93) 期間中 貿易額의 增加目標을 3.2배로 설정
- 合營法 制定·發表(1984. 9)

〈主要 經濟協力 對象國〉

- 蘇聯·中國, 日本 및 開發途上國

III. 1990년 이후

〈對內外情勢 및 課題〉

- 러시아·東歐圈의 改革·開放
- 만성적인 經濟沈滯

〈主要政策〉

- 새로운 經濟協力 對象國家의 확대 모색
- UN 加入
- 經濟特區의 設置 움직임
 - ‘羅津·先鋒地域 自由經濟貿易地區 開發構想’ 발표(1991. 12)
 - 外國人 投資3法(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제정(1992. 10)

〈主要 經濟協力 對象國〉

- 中國, 日本, 西方先進國, NICs 및 東南亞國家, 南韓

資料 : Ha-cheong Yeon, *Enlarg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tatus and Prospects*, KDI Working Paper No. 921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pril 1992; 內外通信社, 『內外通信』, 綜合版(43~48).

1993년 1월에는 「外國人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 「外貨管理法」 및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을 제정하고 4월에는 「地下資源法」⁵⁾을 제정하는 등 法的 投資環境의 개선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北韓 經濟政策의 變化는 市場經濟體制로의 根本的인 修正이나 本格的인 開放은 아니고 경직된 北韓體制의 構造的 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그치고 있다.⁶⁾ 현재 북한은 東歐의 改革·開放化 趨勢에 대해 住民生活을 향상시키는 政策으로 대처하면서 內部的으로 體制強化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방어자세를 보이고 있다.

2. 北韓 經濟開放의 限界

北韓은 현재 政治的인 側面에서 體制維持를 위해서는 主體思想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할 수 없다. 반면 沈滯된 經濟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資本과 先進技術을 도입하기 위하여 對外貿易의 擴大 및 合營法을 통한 合作投資의 積極的 誘致 등 開放化가 절실한 형편이다. 다시 말해서 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北韓經濟의 實狀과 최근 共產主義를 포기하

고 聯邦을 解體한 러시아의 急進的인 改革·開放 可能性, 그리고 中國의 持續的인 經濟改革 推進 등으로 北韓은 기존 전략을 수정하여 對外開放을 擴大할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北韓이라는 극도로 統制된 社會가 개방되어 住民들이 자신의 絶對·相對的 貧困과 生活水準 隔差를 인식하게 된다면 東歐와 같은 體制崩壞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北韓當局이 改革과 開放을 最小化 내지는 억제하려는 요인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東歐의 改革을 自體的으로 평가하고 政治·經濟의 상충된 요인을 감안하여 體制의 安定을 유지할 수 있는 제한적인 改革模型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물론 急進的 改革의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經濟開放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첫째, 經濟開放이 北韓社會에 미칠 否定的 波及效果에 대한 北韓當局의 우려를 들 수 있다. 中國의 經濟改革政策은 農業 및 其他 部門에서 눈에 띄는 成果를 거두었음에도 엄청난 社會體制的 變化와 混亂을 경험하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東歐國家들과 러시아는 體制崩壞까지 경험하였다. 北韓은 對外開放이 金日成-金正日 父子世襲體制로 連結되는 過程 속에서 계속적으로 北韓住民의 服從과 忠誠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北韓體制的 崩壞要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

5) 北韓이 제정한 「地下資源法」에는 “地下資源의 探查, 開發, 利用分野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交流와 協助를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外國人 投資關聯 法令만 500여개에 달하는 中國과 역시 이미 70여개의 關聯法律을 제정·개정하고 있는 베트남에 비해 北韓의 外國人 投資關聯 法制數는 현저히 미비한 실정이다.

면하면서도 北韓住民의節約과增産을 독려할 뿐 전면적인改革과開放을 가능한 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資本主義의弊害를 집중 공격하는 한편 ‘北韓式社會主義’生活樣式의 순결성 고수를 역설하고 있다.

둘째, 北韓은 현재의經濟沈滯가危機意識을 느낄 만큼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自立的民族經濟建設’의 포기과經濟開放으로 야기될 수 있는經濟的從屬問題에 대한警戒心理가開放의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셋째, 開放政策 전반에 대해 北韓指導層內的合致된見解가 없다는 점 또한 北韓의적극적이고 지속적인經濟開放政策의推進에制約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經濟官僚들의進出擴大에 따른開放政策과 기존의政治·軍事優先을 주장하는強硬保守派間的意見對立으로經濟改革과開放이 크게制約될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北韓內에는經濟開放을 위한內部的인改革措置가 극히部分的인水準에 머물고 있다. 合營法的制定에도 불구하고債務問題로 인한對外信用의 실추, 社會間接資本의不足, 北韓市場의貧弱한購買力, 合營企業을 보호할 수 있는法的·制度的裝置의未備 등投資環境이 열악하다. 이로 인한西方國家들의北韓과의經濟協力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러시아의經濟改革과開放政策의成敗에 대한不確實性 등도 北韓開放政策의抑制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당분간體制維持를 위한內部體制를 강화하면서政治體制의 변화 없이 어느 정도經濟發展을 이룩한中國式改革模型을 모방하여體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經濟開放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Ⅲ. 南北韓 經協 有望分野의 選定

1. 南北韓 經協現況

南北韓間的經協은 1988년 「7·7 宣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經協은 주로 交易部門에 치중되어 왔으며, 1992년 通關基準 총교역품목수는 113個 品目(搬入 89, 搬出 24)으로 搬出入 通關總額은 약 1億 7千萬달러에 달했다. 이 중 搬入이 94%를 차지 南韓은 北韓의 主要 輸出對象國으로 부상하였으며, 南北韓間 交易形態는 지금까지 홍콩, 中國을 통한 間接交易이 대부분이나 一部品目的 경우 形態는 間接交易이나 內容面에서는 直交易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交易方式이 개선되어 왔다. 搬出入 通關品目 構造를 보면, 搬入의 경우 鐵鋼·金屬이 77%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 鑛產物(8.8%), 農產物(6.4%), 水產物(3.1%) 등의 순이며, 搬出의 경우는 化學製品(75.6%), 鐵鋼

〈表 2〉 對北韓 交易實績¹⁾

(단위 : 千달러, %)

	1989		1990		1991		1992		1993(1~6)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²⁾
반입	18,655	-	12,278	△34.2	105,722	761	162,863	54.0	93,800	25.2
반출	69	-	1,187	17배	5,547	367	10,563	90.4	1,722	-78.7
계	18,724	-	13,465	28.1	111,269	726	173,426	56.7	95,522	15.0

註 : 1) 通關基準. 2) 前年同期對比.
資料 : 關稅廳.

(18.6%), 纖維類(4.7%) 등이다. 主要搬入品目(92년 통관기준)은 亞鉛塊(5,900萬달러), 金塊(3,700萬달러), 시멘트(2,800萬달러) 등이며, 主要搬出品目(92년 통관기준)은 LDPE(510萬달러), 냉연강판(200萬달러), 폴리에틸렌 필름(120萬달러) 등이다.

한편 1993년 上半期(1~6월)중 南北韓間搬出入은 北韓의 NPT 脫退宣言에 따른 南北關係의 경색, 北韓의 經濟事情 惡化 등으로 인해 成長勢가 둔화되었으나 의류, 가방, 신발 등 品目에서의 南北韓間 貨加工貿易을 통한 搬入實績이 18件, 142萬달러(前年同期對比 253% 增加)에 달해 향후 貨加工 形態를 통한 南北韓의 經協可能性을 보여주었다(附表 3 참조).

이상과 같이 최근 「基本合意書」 및 「附屬合意書」의 發效에 따라 南北韓 經濟交流가 擴大·發展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반면에 對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の 推進에 있어서 一貫性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음과 같은 問題點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經濟外的 要因에 의한 經濟協力推進의 不振, 들

재 對北經協을 위한 民間企業間 展示의 過當競爭의 노출 등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北韓經濟 및 產業構造의 精確한 實態把握과 함께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 대한 基本政策方向을 精確하고 그 具體的 推進戰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南北韓 經協의 推進戰略

南北韓 經協의 基本目標은 南北韓 經濟共同體를 형성하기 위한 基盤을 조성함으로써 統一經濟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統一韓國」의 經濟的 福利를 極大化하는 것이다. 南韓의 「3段階 統一方案」에 부합되는 南北 經濟交流·協力の 推進은 互惠的 直·間接 交流의 擴大를 통해 相互信賴基盤을 확립하는 信賴構築段階, 經濟의 相互補完性을 확대하는 協力增進段階, 單一經濟圈의 形成基盤을 확립하는 同化段階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漸進的인 發展段階는 서로 다른 體制間의 收斂過程에서 발생하는 副作用과 社會的 費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發展過程

〈表 3〉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段階的 推進方案

	經協段階	段階別 前提	推進課題
和解 協力期	신뢰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문제 해결 · 체제수호적 경제개방 (본격적 경제개혁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교역・간접투자 ·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구축 (직교역・직접투자로 전환) · 경제상담소 설치(판문점)
	협력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경제개혁: 개혁・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역 및 투자규제 완화 · 상주경제대표부 설치 · 철도 및 도로연결 확대 · 차관제공 및 지급보증
南北 聯合期	동질성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연합구성 · 2차 경제개혁: 경제자유화 및 사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공동시장 형성 · 전국적 통행・통신망 구성 · 사회간접자본 공동투자
統一 國家期	전면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국가(1민족・1국가) · 경제・정치 등 분야별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노동이동 완전자유화 · 각종 제도의 단일화 · 남북간 경제력격차 축소를 위한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다. 특히 北韓은 體制收斂을 위해 폭넓은 變革과 많은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므로, 南韓은 北韓의 불확실한 政策變化와 불투명한 改革展望에 대하여 伸縮的인 政策對應과 忍耐을 필요로 한다.

南北韓 經濟協力の 發展段階로 볼 때 첫째, 信賴構築段階는 直・間接商品交易을 확대하여 서로 協力에 있어서의 信賴關係를 확립함으로써 南北韓間의 經濟交流와 協力の 發展基盤을 조성하는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南北韓 交易活性化를 위해 「南北韓 經濟協力에 관한 基本協定」을 체결하여 政治的 變化에도 단절되지 않는 交流基盤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協力增進段階는 直・間接投資의 擴大를 통

하여 적극적인 經濟協力事業의 共同推進과 産業分業化로 産業構造 次元에서 相互補完性을 확대하는 南北協力の 場을 의미한다. 協力增進段階의 基本課題는 中・長期的 側面에서 民族經濟共同體를 지향하면서 각기 활력을 유지하여, 分業과 特化의 經濟的 實利를 얻을 수 있는 共同事業을 擴大하여 相互依存度を 높여가는 것이다. 셋째, 同化段階는 生産要素의 自由移動段階로서 經濟・社會制度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서로 개방하여 單一經濟圈의 形成基盤을 확립하는 發展段階이다. 즉 同化段階는 經濟的으로는 물론 社會・文化的으로 전면적인 交流・協력이 가능해지는 단계로서 經濟共同體에 이르는 統合可視化段階의 意味를 가지므로 南

北韓의 각종 制度의 收斂·整備가 필요하며, 產業構造의 調整과 南北韓 經濟의 균형 있는 發展을 위한 國土 및 經濟·社會發展計劃의 共同推進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關係의 發展方向은 北韓의 開放·改革에 따라 北韓經濟가 回復되고, 南韓은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經濟協力을 증진시킴으로써 民族經濟共同體의 回復를 촉진하는 方向이 바람직하다. 北韓의 開放과 改革은 北韓經濟가 침체에서 벗어나 成長基盤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南北韓間의 社會·文化的인 異質性を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南北韓 經濟關係는 北韓의 改革·開放趨勢에 맞춰 相互補完성이 큰 부문부터 협력해 나감으로써 經濟體制도 漸進적으로 수렴하는 南北均衡의 體制收斂이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南韓의 政策課題는 漸進的 經濟協力段階에서 北韓의 體制守護的 開放을 돕는 것이 아니라 北韓의 體制改革的 開放을 지원하는 方案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南北韓 交易 및 經濟協力の 推進은 經濟交流에 따른 直接的인 經濟的 利益도 중요하지만 南北韓間 緊張을 완화시키고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할 南北韓 單一經濟共同體의 形成에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重要性을 더하고 있다.

理論的인 側面에서 볼 때 南北韓間 정상적인 協力體系가 이루어질 경우 產業構造와

賦存資源의 側面에서 相互補完성이 커서 南北韓 모두에게 經濟的 實益이 보장될 것이다. 즉 生産要素의 側面에서 南韓이 資本과 技術에 優位성이 있는 반면, 北韓은 相對的으로 풍부한 天然資源과 勞動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經濟交流·協力は 南北韓 모두에게 經濟的 實益을 보장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南北韓間에 이루어질 수 있는 經濟交流 및 協力の 種類는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區分할 수 있다. 첫째, 直·間接交易으로 이는 經濟交流의 가장 基本的인 段階이며 實現이 용이하고 擴大·發展의 可能性 또한 높은 분야이다. 둘째, 南北韓의 兩地域이나 第3國에 대한 共同投資, 技術交流, 資源共同開發 등과 같은 直接的인 生産活動部門에서도 南北韓間의 經濟協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交通·通信·金融 등과 같은 商品去來나 投資交流를 원활하게 하는 下部構造의 共同構築 역시 가능하다. 넷째, 民間이나 政府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現金 및 現物의 供與, 또는 北韓의 經濟發展을 촉진하기 위한 間接的인 支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南北韓 交流·協力事業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에 있어서 南北韓 當局의 同意와 支援下에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최근 北韓經濟가 처한 對內外的 어려움이 북한으로 하여금 南北韓 經濟交流 推進에 나서게 할 可能性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經濟外的인 側面에서 보면 지

난 40여년간 體制競爭關係를 유지해 오면서 體制的 優位性을 주장해 온 北韓이 北韓住民들에게 南韓經濟의 優位性을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南北韓 經濟交流에 積極的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그동안 南韓의 積極的인 對北韓 經濟協力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現在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は 間接的·制限的인 水準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初期段階의 經濟協力は 분쟁의 소지가 적으며, 또한 南北韓間 關係改善의 波及效果가 큰 분야에서부터, 그리고 雙方的 受容이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재의 間接交易形態를 直接交易形態로 發展시키고, 第3國으로의 共同進出, 南北韓 經濟協力側面에서의 間接·直接投資로의 段階別 接近이 필요하다. 그러나 連鎖效果(linkage effect)의 極大化를 위해 여러 段階를 同時에 추진하는 유연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南北韓 交流·協力は 基本的으로 經濟的 必要性에 基盤을 두어야 할 것이나 이는 또한 南北韓間的 關係改善을 통해 民族經濟共同體 形成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北韓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非經濟的인 要素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예로서 兩地域間的 移轉去來 혹은 間接的인 金融支援 등은 短期的인 經濟的 利益을 넘어서 南北韓間的 關係改善과 信賴構築을 目的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合作投資나 技術移轉의 推進이 北韓에게 단 순히 ‘先進 資本·技術의 開發途上國으로의

移轉’이라는 式의 인식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南韓의 蓄積된 技術과 經驗(know-how), 그리고 海外市場基盤을 바탕으로 北韓의 立地를 고려하여 北韓의 潛在的 內需市場을 개발한다는 次元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南北韓 經濟協力は 短期的으로는 南北韓 關係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자존심과 명분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되, 長期的으로는 經濟性에 기초하여 일방적인 對北韓 支援이 아닌 相互補完的인 協力を 지향함으로써 北韓經濟를 實質的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統一韓國」의 政治·經濟·社會制度의 同質化 費用을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の 擴大는 南北韓 當局間的 合意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 즉 南北韓 經濟交流는 南北韓의 相異한 體制로 인하여 基本的으로 兩側 政府의 管理下에서만 가능하므로 經濟交流의 擴大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經濟協定の 締結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南北韓經濟交流의 增大를 위해서는, 첫째 「南北合意書」에 따라 構成된 〈交流協力 分科委員會〉와 〈經濟協力 共同委員會〉에서 經濟交流·協력에 관한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고 實現possible한 協力對象을 발굴하며, 둘째 對外的으로 南北韓 去來가 內國間去來로 통용되도록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셋째 經濟交流·協力の 必要性에 대한 北韓과의 共感帶를 형성하여 相互體制를 인정하고

北側 現實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經濟論理에 立脚한 經濟協力を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協力事業의 主體가 南韓은 民間企業이 되고 北韓은 政府가 되는 만큼, 南韓企業이 北韓當局과 직접 접촉하여 事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나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政府는 南北韓經濟交流의 制度的인 ‘틀’(frame)을 마련하여야 한다. 民間企業은 南北韓 當局 사이에 「南北交流 및 經濟協력에 관한 基本協定」이 체결되고 제도화될 때까지 각 個別企業의 競爭的인 對北韓 接觸 및 接觸結果에 대한 誇張된 弘報를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事業推進이 여의치 않을 경우 北韓이 그 책임을 南韓政府에 귀착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앞으로 <經濟協力 共同委員會>의 實踐的 協議에 障礙要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經濟交流·協力分野에서는 北韓이 交流보다는 合作投資를 선호하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具體的인 政策對應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政府內에서도 經濟交流·協力を 实效性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部處間 協議體制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낙관적인 분위기에 불구하고 南北韓 關係는 많은 不確實性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과의 經濟交流 및 協力の 推進은

民族經濟共同體를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임을 상기하여 政府와 民間의 協調下에 충분한 인내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協力の 推進은 北韓의 合營希望部門 중에서 南北韓 體制上의 差異로 인한 制約要因을 고려하여 우선 共同漁撈 및 水産物加工合作 등 北韓이 우려하는 南北韓 合營에 따른 波及效果가 相對的으로 작은 部門, 그리고 북한이 최근 輸出增大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纖維·衣類部門과 生活用品, 食料品 등 輕工業部門의 經濟協力부터 시작하는 것이 實現可能性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北韓이 開發必要性을 크게 느끼고 있고 共同開發·利用으로 南北韓 共同利益을 도모할 수 있는 無煙炭, 鐵鑛石, 非鐵金屬 등의 地下資源 開發部門 등이 유망하며, 北韓經濟의 가장 큰 隘路要因인 에너지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한으로의 電力供給 또한 技術·費用的 側面에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여겨진다. 中·長期的으로는 電氣·電子部門, 自動車, 造船部門의 合作投資 또한 가능할 것이다.

한편 南北韓 經濟協力の 활발한 진전을 위해서는 北韓의 資本不足問題의 解消에 기여할 수 있는 迂迴的인 金融支援方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南北韓 UN同時加入을 계기로 北韓은 IMF나 IBRD, 그리고 ADB 등과 같은 國際金融機構 加入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기구를 통한 間接的 支援은 자연스러운 經濟協力 方式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⁷⁾

7) 北韓은 1992년 5월 ADB 加入意思를 간접표명한 바 있으며, 1993년 3월 방콕에서 개최된 亞·太經濟社會理事會(ESCAP) 總會에서는 世界銀行 加入問題에도 關心을 표명한 바 있다(大韓貿易振興公社, 前揭書, 1993. 6, p.2 참조).

3. 南北韓 交易擴大方案

物資交流은 交流·協力段階 중 가장 基本的인 段階이며 實現이 용이하고 擴大·發展可能性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南北韓間에도 다른 分野의 交流·協력과 並行, 우선 서로 필요로 하는 物資를 搬入하고 供給餘力이 있는 物資를 搬出해 나감으로써 物資交流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南北韓間的 商品交易은 賦存資源과 經濟發展段階의 差異에 따른 產業部門別 相互補完性和 價格의 差異 등으로 인해 短期的인 觀點에서도 相互利益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直交易의 定着

1992년 基準 南北韓間的 交易額은 1億 7,300萬달러(通關基準)로 韓國은 이미 北韓의 중요한 交易相對國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現在의 南北交易은 주로 香港, 싱가포르

르, 日本 등 第3國을 통한 間接交易方式으로 추진되고 있어 交易에 따른 利益이 仲介商에게 귀착되고, 이것이 附帶費用 增加의 原因이 되고 있어 本格的인 物資交流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1991년 이후 北韓으로의 物資搬出이 다소 활기를 띠고 交易의 形態도 北韓 貿易會社와의 直接契約을 통한 求償貿易 등 直交易의 形態로 발전되고 있어 經濟外的 要因의 解決 여하에 따라 앞으로 南北韓交易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는 있으나, 北韓과의 交易이 아직까지 間接交易의 形態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北韓으로부터의 一方의 物資搬入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中國物資의 北韓商品 偽裝事例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⁸⁾

따라서 南北韓 物資交流의 擴大를 위해서는 現在의 間接交易方式을 直交易方式으로 정착시킴으로써 體制의 상이함에서 오는 基本的인 物資交流의 制約과 第3國을 통한 交易方式이 갖는 諸般 問題點을 극복하는 것이 先제되어야 한다. 南北間的 交易이 直交易으로 정착될 경우 物資의 適正價格維持, 適期供給 등 實益이 크며 直交易의 擴大로 相互信賴가 쌓일 때 合作投資 등 經濟協力を 深化·發展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直交易의 推進을 위해서는 <經濟協力 共同委員會>를 통해 交易規模, 交易可能品目, 決濟方式, 紛爭調整 등의 문제에 대한 南北韓 政府間 協議가 進行되어야 한다. 이미 兩側은 南北經濟會談(1984. 11~1985.

8) 현재 우리나라는 北韓에서 製造工程을 거친 物品을 國內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단 關稅免除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러한 無關稅惠澤을 노리는 일부 貿易業者들이 中國 및 東南亞 등지의 商品을 北韓產 物品으로 둔갑시켜 國內로 반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製品의 原產地를 파악하기 위한 南北韓 物資交流의 原產地規程 定立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일지라도 第3國으로의 輸出이 시도될 경우에는 原產地規程의 適用이 輸出相對國의 稅關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主要市場의 原產地關聯規程과 그 適用事例에 대한 檢討가 필요하다(韓弘烈,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5, p.17 및 p.21 참조).

11)을 통해 價格決定, 決濟通貨, 輸送手段 등 諸般 交易規程에 대한 合意를 이룬 바 있으며 交易量, 去來當事者, 關稅免除 등에 대해서는 意見接近을 본 바 있다. 따라서 交流·協力關聯 基本協定の 締結에 있어서는 이미 合意된 事項과 協議內容 및 意見接近을 본 事項은 加급적 수용토록 하되 未合意 事項에 대해서는 北韓의 內部的 特殊性과 經濟的 劣勢를 감안, 南韓側에서 伸縮性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한편 南北韓 交易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國際的으로 內國間去來로 통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分斷國間 「內國間 去來의 法的地位 問題」는 國際法上 民族自決權에 의해 보장되며 이는 GATT法 해석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國際社會에서 우리 측이 먼저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政府는 南北間 去來가 內國間 去來라는 既存의 主張을 견지해 가면서 對北韓 交易에 대한 關稅減免과 交易支援制度의 實施를 持續的으로 추진해 나가되, 第3國이 먼저 異意를 제기하기 전에는

9) 코레스契約이란 一國의 金融機關이 他國의 換去來締結銀行(correspondent bank)에 實質的인 支店業務를 대행하도록 체결하는 去來契約이다. 이 契約에 의한 南北韓 銀行 相互間 勾좌개설로 상대방 은행에 勾좌를 가지므로써 決濟가 直接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南北韓의 貿易業者들이 자기측 去來銀行을 통하여 貿易業務를 수행할 경우 엄격한 收支均衡 維持, 北韓輸入商品의 쿼타를 남한내 기업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清算去來方式을 통한 貿易規模의 制限要因을 극복할 수 있는 方案이 된다.

GATT의 承認을 취득하고자 하는 努力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南北韓 交易에 대한 代金決濟는 清算去來方式을 原則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決濟方式도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附屬合意書」, 1條 8項). 清算計定方式을 취할 경우 對北韓 交易決濟窓口가 一元化되기 때문에 搬出入의 動向把握이 용이하며 교역상의 收支均衡을 유지하기가 쉽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清算去來方式은 交易規模를 縮小 均衡化할 우려가 있으므로, 一定期間 交易이 進行된 후에는 점차 코레스契約(correspondent arrangement)⁹⁾과 같은 正常的인 去來方式으로의 전환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南北韓 兩側 指定銀行에 清算計定이 설정되고 去來慣行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北韓의 外換事情을 고려하여 당분간 物物交換方式이나 對應購買方式 등 求償貿易方式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求償貿易의 品目は 制限的일 수밖에 없고 需要增大 및 環境變化에 대한 適應能力도 약하므로 이의 극복을 위해 長期的으로 北韓의 產業開發 支援效果가 있는 기업제휴에 의한 共同生産(co-production)方法의 모색도 중요하다. 즉 南北韓 比較優位에 입각한 分業體制를 設定, 業種別·産業別·品目別 特化製品과 部品の 相互交換 및 共同 組立生産 등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北韓의 러시아, 中國 및 日本과의 交易에서 추정해 볼 때 신발, 섬유 등을 비롯한 輕工業分野 및 運送手段,

造船, 水産物加工分野에서 기업제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南北韓間 交易의 紛爭調整 방법은 現實的으로 <經濟協力 共同委員會>에서 南北 當事國間의 協議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東西獨의 경우는 兩獨 모두 <뉴욕協約>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紛爭이 國際協約에 따라 쉽게 조정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현재 北韓은 <뉴욕協約>에 未加入된 상태이기 때문에 南北韓間 交易에 따른 紛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南北韓 政府間에 具體的 內容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지고 南北 각각의 商事仲裁機構間 協定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南北韓 交易有望品目の 選定

南北韓 交易有望品目の 選定은 전세계를 상대로 한 南北韓의 總貿易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北韓 貿易統計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品目選定은 南北韓과 日

本을 포함한 OECD와의 交易分析을 통해서 가능하다. 南北韓과 OECD와의 交易을 통한 南北韓 交易有望品目の 選定은 北韓의 對OECD 交易比重이 낮아(1990년의 경우 輸出 36.7%, 輸入 20.6%) 說明力이 다소 떨어지는 短點은 있으나, SITC 5단위까지 細分類된 品目選定이 가능하고 國際競爭力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長點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 中國 등은 北韓의 주요 交易相對國이기는 하나 商業的 目的보다는 友好的 次元에서 交易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北韓商品의 對外競爭力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細分類된 貿易統計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北韓과 이들 국가와의 貿易分析을 통한 구체적인 交易有望品目 選定에는 어려움이 따른다.¹⁰⁾

日本을 포함한 OECD에 대한 北韓의 輸出品目은 北韓이 國際競爭力을 갖는 商品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北韓商品 搬入時 北韓商品의 質的인 問題點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北韓이 심각한 外貨不足에도 불구하고 현재 OECD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品目은 北韓經濟가 가장 필요로 하는 品目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 南韓이 OECD에 輸出하는 동시에 北韓이 OECD로부터 輸入하고 있는 품목은 對北韓 搬出可能性이 높을 것이다.

原則的으로 國際競爭力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生産要素費用, 生産性, 生産者價格, 換率, 輸出價格, 輸出採算性 등의 價格 및 費用指標와 品質, 販賣力, 制度 등의 非價格

10) 中國의 경우는 細分類된 貿易統計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SITC 2단위(中分類) 기준의 貿易統計만 이용 가능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分類方式이 다른 FTN(uniform foreign trade commodity nomenclature)체계를 따를 뿐만 아니라 對北韓貿易統計에는 누락된 품목이 많다. 또한 北韓과 이들 國家와의 交易品目은 北韓의 對OECD 交易에도 거의 대부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OECD와의 交易에 한정시켜 南北韓 交易有望品目を 선정하는 데 따르는 問題點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中華人民共和國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및 Placon, *Plan Econ. Report*, USSR 참조.

指標, 그리고 輸出入變動과 이에 따른 占有率의 變化를 반영하는 貿易成果指標 등의 지표들을 包括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北韓의 경우 價格·費用指標 및 非價格指標의 이용이 거의 不可能하므로 貿易成果指標만을 이용하여 實證的 國際競爭力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限界를 지낸다. 또한 產業別·商品別 比較優位評價時 직면하는 統計上的 어려움은 產業分類(aggregation)의 問題인데, 가장 상세한 貿易統計라도 具體的인 商品이 아닌 產業小分類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產業分類內에서 동일한 商品을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하는 產業內貿易(intra-industry trade)이 존재하여 동일한 產業內에서 比較優位와 比較劣位를 동시에 顯示하는 矛盾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南北韓 交易品目別 對外競爭力을 相互比較하기 위해서 顯示比較優位指數(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와 함께 純輸出(輸出-輸入)의 概念을 도입한 貿易特化指數(trade specialization coefficient: TSC)를 이용, 南北韓 交易有望品目を 選定하기로 한다.

11) $RCA_j < 1$ 이라고 해서 반드시 比較劣位(comparative disadvantage)인 것은 아니다. 특히 北韓은 自給自足 經濟體制이고 國際交易體系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產業內貿易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RCA_j < 1$ 이라 하더라도 輸出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比較劣位라고 간주하기보다는 比較優位가 약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RCA指數는 資料의 確保가 쉽고 輸出變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分析이 용이하다는 長點이 있으나 過去實績을 基準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交易成長潛在力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며, 특히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채택하고 있는 北韓의 경우 交易이 基本的으로 生産增大 등의 積極的인 效果보다는 需要·供給 不一致를 조정하는 役割이 강한 점을 볼 때 RCA指數에 의한 南北韓 交易有望分野의 選定은 制限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北韓의 國際競爭力을 다른 國家들과 相關된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方法은 RCA指數 比較 外에는 어렵다는 制約要件을 감안할 때 이러한 分析方法이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顯示比較優位指數(RCA)는 다음의 式으로 나타낼 수 있다.

$$RCA_y = \frac{X_y / X_i}{X_{wy} / X_w} \dots\dots\dots(1)$$

여기서

RCA_y : 特定貿易市場에서 i 國 j 商品의 顯示比較優位指數($RCA_y > 1$ 이면 比較優位, $RCA_y < 1$ 이면 比較劣位¹¹⁾)

X_y : 特定市場에 대한 i 國 j 商品의 輸出額

X_i : 特定市場에 대한 i 國의 輸出總額

X_{wy} : 特定市場의 j 商品의 總輸入額

X_w : 特定市場의 輸入市場規模

貿易特化指數(TSC), 즉 純輸出比率指數는 다음과 같다.

$$TSC_y = \frac{X_y - M_y}{X_y + M_y} \dots\dots\dots(2)$$

여기서

TSC_y : 特定市場에서 i 國 j 商品의 總交易에 대한 純輸出의 比率($TSC_y > 0$ 이면 輸出特化, $TSC_y < 0$ 이면 輸入特化)

X_y : 特定市場으로의 i 國 j 商品의 輸出額

M_y : 特定市場으로부터 i 國 j 商品의 輸入額

1990년 SITC 5單位分類를 기준으로 선정한 南韓의 搬入(北韓의 搬出) 有望品目은 品目別 規模 및 交易特性에 따라 다음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A그룹: 北韓의 $RCA > 1$ 인 동시에 南韓의 $RCA < 1$ 이며 北韓의 $TSC > 0$ 인 동시에 南韓의 $TSC < 0$ 이고 北韓의 對OECD 輸出額이 10萬달러 이상인 品目(表 4 참조)

B그룹: 北韓의 $RCA > 1$ 인 동시에 南韓의 $RCA > 1$ 이며 北韓의 $TSC > 0$ 인 동시에 南韓의 $TSC > 0$ 인 品目 중 農水産物, 鑛産物(SITC 0~4)과 鐵鋼 및 非鐵金屬 등 材料別 製造製品(SITC 6)(附表 1 참조)

C그룹: <A그룹>과 같은 特性을 지니나 北韓의 對OECD 輸出額이 10萬달러 미만인 品目(附表 1 참조)

여기서 <A그룹>은 北韓의 對OECD 輸出 規模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10萬달러 이상) 南韓은 주로 輸入에 의존하는 品目으로 南北韓 交易에 있어서 北韓으로부터의 搬入이 유망한 品目이며, <B그룹>은 南北韓 공

히 對OECD 輸出競爭力을 지니나 產業內交易(intra-industry trade) 혹은 需給狀態에 따라 北韓으로부터의 搬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品目이다.

한편 南韓의 搬出(北韓의 搬入) 有望品目 또한 交易의 特性과 規模에 따라 다음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A그룹: 北韓의 $RCA < 1$ 인 동시에 南韓의 $RCA > 1$ 이며 北韓의 $TSC < 0$ 인 동시에 南韓의 $TSC > 0$ 인 品目(表 5 참조)

B그룹: 南韓의 $RCA > 1$ 이며 $TSC > 0$ 인 동시에 北韓의 $TSC > 0$ 인 品目 중 機械 및 運輸裝備(SITC 7) 및 기타 工産品(SITC 8) (附表 2 참조)

C그룹: 南韓의 $RCA < 1$ 인 品目이지만 南韓의 $TSC > 0$ 인 品目으로 北韓의 $RCA < 1$, $TSC < 0$ 인 品目 중 搬出有望品目 (附表 2 참조)

여기서 <A그룹>은 南韓이 國際競爭力을 갖고 OECD에 輸出을 하며 北韓은 OECD로부터 輸入을 하고 있는 品目이며, <B그룹>은 南韓이 輸出競爭力을 갖는 品目인 동시에 北韓 또한 對OECD 貿易黑字品目이지만 南北韓 産業發展段階를 고려할 때 對北韓 搬出이 유망한 品目이다. 그리고 <C그룹>은 南韓이 對OECD貿易에서 확고한 輸出競爭力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南韓의 OECD에 대한 輸出이 輸入보다 많은 品目 중에서 南北韓 産業發展段階上 對北韓 搬出이 유망한 品目이다.

〈表 4〉 對北韓 搬入有望品目(1990년 SITC 5單位 分類基準)¹⁾

〈A그룹〉

	主 要 品 目
農林產物	원목, 생사, 기타 모피, 새의 우모피 및 깃털
水 產 物	청어, 정어리 등 냉동어류
鑛 產 物	건설용 자갈·쇄석·싱글과 플린트, 용융마그네시아, 고령토, 석영과 규암, 천연동석 및 활석, 선삭·셰이빙·칩프·밀링웨이스트·톱밥과일 및 스템핑, 주철·동·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무연탄 등
石油精劑	석유제리
化學製品	기타정유(박하유 등)
織 物	면제의 토일렛, 린넨 및 주방린넨
非金屬鑛物	기타 가공한 다이아몬드 ²⁾
鐵 鋼	페로실리콘, 페로크로뮴, 빌레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67311)*
非鐵金屬	未加工銀, 精製銅, 니켈합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연 및 연합금, 마그네슘과
機 械	기타 수평선반(73137)*

註: 1) 〈A그룹〉은 北韓의 RCA>1, 南韓의 RCA<1이고, 北韓의 TSC>0, 南韓의 TSC<0인 品目 中 北韓의 對OECD 輸出額이 10萬달러 이상인 品目.

2) 北韓과 벨기에의 合營으로 이루어진 貨加工 搬出商品으로 추정됨.

* 는 유사품목이 많아 구분을 위해 SITC번호를 명기한 것임.

資料: OECD貿易데이터프.

〈表 5〉 對北韓 搬出有望品目(1990년 SITC 5單位 分類基準)¹⁾

〈A그룹〉

	主 要 品 目
食 料 品 ²⁾	마카로니·스파게티 및 그 유사제품, 베이커리제품의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코코아분말, 파스타 등
石油精製	나프탈렌 등(33525)
化學製品	안료 및 색소, ABS수지, 플라스틱판·쉬이트·필름·박 등(폴리카보 네이트, 알 킷수리, 폴리에스테르의 제품), 무수말렌산, 오르토프탈산 디옥틸, 디아조·아조·아족시 화합물, 숄폰아미드, 산화아연 및 과산화아연, 폴리에틸렌, 에틸렌의 중합체, 프로필렌공중합체 등
皮 革	동물용마구류, 가죽제품과 재생가죽제품(61290)
고 무	고무타이어,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벨트, 고무관·파이프·호스(62144), V벨트와 벨팅(62921)
펄프종이	포장대, 앨범, 장부·회계부·노트북(61290)

〈表 5〉의 계속

主 要 品 目	
織 維	면사,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 합성스테이플 섬유사
織 物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직물, 파일직물과 셔닐직물, 표백 또는 날염한 면직물, 강력사직물, 견직물, 경편직물,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 자수포, 플라스틱을 가미한 방직용 섬유직물,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 특수사의 끈·코오디지·로오프 및 케이블, 포장용 빈 포대,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 구멍자켓 및 구멍벨트류 등
窯業土石	기념비석 및 건축석, 대리석 ³⁾ ·트래버틴·엘리마스터 등, 유리제의 포장용블록·스랩·벽돌·스퀘어·타일, 도자제의 식탁용품 및 부엌용품 등
鐵 鋼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67312, 67322, 67324), 평판압연제품(냉간압연, 철·비합금강·스테인레스강의 봉, 철강제의 관 및 관연결기구와 중공프로파일 등)
金屬製品	철강제의 가정용품, 철강제의 못·압정·제도용핀·스테이플 등, 비계·차단기 등, 줄, 가정용공구, 가위·칼, 비금속계급고·스트롱박스, 원형톱날 등
機 械	공기조절기, 자수식 작업트럭, 작업트럭 및 트럭의 기계부분품, 각종 크레인(74433), 탭·코크·밸브 등(74790)
通信機器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76281), 음성재생기, 전화기, 유성전화용 또는 유선전신기, 가청주파증폭기, 송신기기, TV·라디오송신기·무선전화용 송신기·기타 통신장비의 부분품 및 부속품, 음향증폭세트 등
電氣機器	탄소피막형 고정식저항기, 램프홀더, 변압기(77119), 필라멘트 램프,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축전기 등
家電製品	가정용냉장고, 기타 전열기기
自動車및 部 品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자전거
船 舶	화물선
雜 製 品	상들리에 및 조명기구, 휴대용램프, 핸드백·트렁크·슈트케이스 등 색과 백, 완구용악기류, 운동용품, 골프용품, 운동용장갑류, 포장용기·뚜껑·마개 등, 연필·볼펜, 신변장식용품, 오르간·피아노·현악기류, 보온병, 프레스파스너 등
衣 類	각종 의복 및 의복부속품(넥타이·스카프·모자·장갑 등)
신 발	스포츠화, 기타신발류(갑피를 가죽·고무·플라스틱 등으로 만든것)
精密機器	사진기, 팔목시계, 벽시계, 쌍안경, 기계요법용·맛사지용기기, 시력교정용·보호용 안경 및 고글

註 : 1) 〈A그룹〉은 北韓의 RCA <1인 동시에 南韓의 RCA >1이며 北韓의 TSC <0인 동시에 南韓의 TSC >0인 품목.

2) 주로 호텔이나 外國人을 위한 食堂 등에 需要處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搬出規模에는 限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남한내에서 생산되지는 않고 단순히 가공되는 상품.

() 안의 숫자는 SITC 5單位 分類番號임.

資料 : 〈表 4〉와 동일.

4. 南北韓 經濟協力 擴大方案

가. 推進方向

일반적으로 直接投資나 共同投資와 같은 經濟協力は 投資地域의 經濟的 條件이나 現地의 國內法에 拘束을 받기 때문에 商品交易을 통해 相互間的의 信賴와 去來價行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外換不足을 겪고 있는 北韓은 1984년 合營法 發表 이후 주로 日本內 朝總聯系 企業들과의 衣類縫製 分野를 중심으로 償還負擔이 없는 委託加工 貿易¹²⁾을 통한 合作投資의 推進에 積極性을 보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 北韓은 全般的 對外貿易의 減少趨勢에도 불구하고 衣類만은 日本과의 委託加工貿易에 의한 輸出과

12) 北韓(受託者)은 第3國(委託者)으로부터 原·副資材를 輸入, 이를 가공한 후 賃加工을 보장받는 條件으로 수출하는 委託加工貿易을 積極 推進하고 있는데, 北韓의 立場에서는 短期間內에 制限된 設備만을 가지고도 輸出을 확대할 수 있다는 長點 때문에 이러한 方式의 合作形態에 關心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 1991년 말부터 시작된 南北韓間 委託加工去來는 1991년 3萬 3千달러(2件), 그리고 1992년에는 44萬달러(8件)에 달했고, 1993년 上半期中에는 北韓經濟難에 따른 交易物資와 外換不足 등 經濟的인 問題와 NPT 脫退宣言 등으로 南北關係가 경색되어 全般的으로 交易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賃加工實績만은 前年同期對比 253% 증가한 142萬달러(18件)를 기록하여 그 規模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附表 3 참조).

北韓 最大의 衣類輸出基地의 하나인 獨逸 및 香港 등의 賃加工生産注文이 늘어 크게 성장하였으며, 衣類輸出增加에 따라 纖維·織物類의 輸入도 증가하였다. 한편 北韓은 代金決濟能力의 不足과 현재 아연괴 등 일부 原資材에 국한되어 있는 對南韓 搬出品 目的 限界性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으로 南北韓 經濟交流에 있어서도 經濟合作과 物資交流의 同時推進을 희망하고 있다. 南韓의 경우도 현재 對內的으로 製造業 등의 經營環境이 惡化됨에 따라 國內企業의 賃金上昇으로 國際競爭力을 喪失한 輕工業製品에 대해 많은 企業들이 海外投資를 積極的으로 추진하고 있어 南北韓 合作投資에 대한 相互 協力可能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¹³⁾ 南北韓間의 合作投資가 相互競爭力을 갖는 分野를 中心으로 실현될 경우에는 雙方 經濟에 相互補完的 上昇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西方國家의 對北韓 合作投資가 北韓의 對外信用 및 採算性問題 그리고 合營企業을 보호할 수 있는 法的·制度的 裝置의 未備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日·北韓關係가 정상화될 경우 合作投資는 크게 增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北韓은 심각한 經濟難을 打開하기 위해 國際聯合開發計劃(UNDP)의 支援下에 함경북도 청진, 나진, 선봉 일대의 經濟特區化 計劃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政府次元에서의 經濟協力方案의 論議와 아울러 北韓의 수용이 相對的으로 용이한 在美, 在中, 在日 등 海外僑胞 및 國內企業의

海外支社 등을 통한 對北韓 經濟協力 方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남포지역의 ‘南北合作企業 專用工團’ 및 非武裝地域內 ‘自由貿易地帶’ 設置 등 直接的인 南北韓 經濟協力事業에 대해 積極的이고 體系的인 準備作業이 요구된다.

實質的인 經濟協력을 위해서는 南北韓 經濟의 潛在力을 평가하여 雙方의 受容이 용이하고 共同의 利益이 存在하는 領域부터 協力の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南北韓 經濟協력은 初期段階에서는 北韓經濟의 脆弱點을 보완해 줄 수 있는 部門에 우선적으로 支援·協力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經濟協력이 本格化되는 단계에서는 南北韓 產業構造 改編의 必要性을 염두에 두고 南北韓의 產業이 相互補完的인 構造로 발전할 수 있도록 協力的인 方向이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나. 南北韓 經濟協力有望分野의 選定

한 나라의 輸出競爭力은 그 나라의 產業競爭力을 나타낸다는 假定下에 南北韓과 日本을 포함한 OECD國家와의 貿易分析을 통해 南北韓 經濟協力 有望分野를 선정할 수 있다. 1990년 基準 SITC 3單位 商品分類¹⁴⁾를 대상으로 한 對OECD交易에 대한 南北韓 產業의 顯示比較優位指數(RCA지수)를

이용, 南北韓 經濟協力 有望分野를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表 6 참조).

A그룹 : 南北韓 공히 OECD에 대해 產業競爭力을 갖는 分野(南韓의 $RCA > 1$, 北韓의 $RCA > 1$)

B그룹 : 南韓이 OECD에 대해 比較優位인 반면 北韓의 比較劣位인 產業分野(南韓의 $RCA > 1$, 北韓의 $RCA < 1$)

여기서 <A그룹>은 南北韓 공히 對OECD 產業競爭力을 갖고 있는 分野로서 南北韓이 競合關係에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對外競爭力을 바탕으로 經濟協력을 통해 단기기간내에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B그룹> 중에서 현재 南韓이 對OECD 競爭力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對外競爭力이 약화되는 輕工業製品 등 勞動集約的인 產業分野는 對北韓 技術·施設移轉을 통해 對外競爭力을 제고하며, 北韓이 合營을 희망하는 資本集約的인 產業分野의 경우는 北韓의 投資與件이 정비되는 정도에 따라 經濟協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北韓의 比較優位, 南韓의 比較劣位인 產業分野는 南韓企業의 對北韓 進出을 통한 開發輸入分野의 발굴로 輸入先의 多邊化 및 附加價値 提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로서 石炭을 비롯한 鑛産物과 연, 아연, 알루미늄, 니켈, 은 등의 非鐵金屬分野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實質的인 南北韓 經濟協력의 推進을 위해서는 北韓의 合營希望分野(UNIDO 프로젝트 등)¹⁵⁾와 北韓의 최근 力

14) SITC 3單位分類는 具體的인 貿易商品分類라기보다는 產業分類方式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 北韓은 資本·設備의 導入 및 合作投資를 유

〈表 6〉 南北韓 合作投資 有望分野

〈A그룹〉 南北韓 同時 比較優位産業¹⁾(1990년 基準)

有望産業分野		主要競爭相對國 ²⁾					
		日本	홍콩	싱가포르	臺灣	中國	東南亞國家 ³⁾
農水産物	· 수산물가공(037)				0	0	0
	· 미가공식물성물질(292) 김, 미역, 향료용· 의료용 식물 등					0	0
鑛産物	· 건축 및 기념비 석재(273)					0	0
金屬製品	· 날붙이(696) 칼, 면도날 등	0	0		0	0	
窯業	· 시멘트(661)						
通信機器	· 텔레비전수상기(761)	0	0	0	0		0
	· 녹음기, 음성재생기, TV 영상 및 음성기록기 등(763)	0	0	0	0	0	0
衣類	· 남성의류(841)		0		0	0	0
	· 여성의류(842)		0		0	0	0

註: 1) SITC 3단위 분류기준으로 南韓의 RCA>1인 동시에 北韓의 RCA>1인 산업.

2) 北韓이 主要經濟協力對象으로 고려하고 있는 日本, 臺灣, 홍콩, 싱가포르, 中國, 東南亞國家의 1990년 SITC 3단위 분류기준으로 對OECD交易의 RCA>1인 산업.

3) 泰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 안의 숫자는 SITC분류번호임.

資料: 〈表 4〉와 동일.

〈B그룹〉 北韓의 比較劣位인 동시에 南韓의 比較優位産業¹⁾(1990년 基準)

有望産業分野		主要競爭相對國 ²⁾					
		日本	홍콩	싱가포르	臺灣	中國	東南亞國家 ³⁾
食料品	저장과실 및 과실제조품 (058)					0	0
纖維	합성섬유 및 그 웨이스트 (266)				0		
	섬유사(651)				0		0
織物	면직물(652)		0		0	0	0
	인조섬유직물(653) 견직물· 티후트직물 등	0			0		0

<B그룹> 계속

有望産業分野		主要競爭相對國 ²⁾					
		日本	홍콩	싱가포르	臺灣	中國	東南亞國家 ³⁾
	기타섬유직물(654)		0			0	
	편직물(655)		0		0		
	를·레이스·자수울·리본· 트리밍 등(656)		0		0	0	0
	특수직물(657) 포대·천막·텐트·모포· 린넨·커튼 등(658)		0		0	0	0
石油精製	잔여 석유생산물(335): 나프탈렌 등			0		0	
皮 革	기타 가죽제품, 안장 및 마구류(612)				0		0
고 무	고무타이어(625)	0			0		
窯 業	도자기(666)	0	0		0	0	0
鐵 鋼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674)	0					
	철강선(678)						
	철강의 튜브, 파이프 및 중공 프로파일(679)	0					
金 屬	금속제의 가정용장비(697)		0		0	0	0
機 械	기계식 취급장치 및 부분품 (774)	0					
	작업트랙, 트레인 등 자동자료처리기계(752)	0	0	0	0		
通信機器	라디오 수신기기(762)	0	0	0	0	0	0
	통신장비 및 부속품(764): 전화기, 유선전화기, 송신 기기, TV카메라 등	0	0	0	0		0
電氣機器	전력기기(771): 변압기, 변 환기, 전류조절기 등	0	0	0	0	0	0
	가전제품(775): 가정용 냉 장고, 진공소제기, 난방기 기, 전열기기 등		0	0		0	0
	기타전기기계 및 장치(778) : 축전지, 필라멘트램프, 내연기관의 전기기기 등	0	0	0	0		

〈B그룹〉 계속

有望産業分野		主要競爭相對國 ²⁾					
		日本	홍콩	싱가포르	臺灣	中國	東南亞國家 ³⁾
電子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관(776):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조립회로 등	0	0	0	0		0
造船	선박, 보트 및 부유구조물(793)	0		0			
衣類	남성의류: 편물(843)		0	0	0	0	0
	여성의류: 편물(844)		0	0	0	0	0
	유아용의류·특수사 직물의류, 티셔츠 등(845)		0	0	0	0	0
	의복 액세서리(846)		0		0	0	0
	가죽·고무·모피의류 및 모자(848)		0		0	0	0
신발	신발(851)				0	0	0
精密機械	광학기구 및 장치(871)	0	0		0		
	광학용품(884): 안경, 렌즈 프리즘, 반사경 등	0	0		0		
雜製品	트렁크, 슈트케이스, 핸드백 등(831)		0		0	0	0
	플라스틱제품(893)		0		0	0	0
	유모차, 장난감, 게임 및 운동용품(894)	0	0	0	0	0	0
	사무 및 문구용품(895)	0	0	0	0		
	신변장식용품, 금·은 세공품 등(897)		0	0	0		0
	악기류(898)	0	0		0		

註: 1) SITC 3단위 분류로 南韓의 RCA>1인 반면 北韓의 RCA<1인 산업.

2) 北韓이 주요 經濟協力對象으로 고려하고 있는 日本, 臺灣, 홍콩, 싱가포르, 中國, 東南亞國家의 SITC 3단위 분류기준으로 각국의 對OECD 交易의 RCA>1인 産業.

3) 泰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 안은 SITC 3단위 분류번호임.

資料: 〈表 4〉와 동일.

點事業分野 및 隘路事業分野를 고려하여¹⁶⁾ 經濟協力對象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結言 및 우리의 政策課題

‘統一韓國’의 長期發展의 基礎가 될 民族經濟共同體는 經濟의 效率性과 衡平性을 실현할 수 있고 韓民族의 歷史的 傳統과 與件에 맞도록 서로 수렴되어 조화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南北韓이 수렴하여 형성할 經濟共同體는 이미 한계를 보인 社會主義 命令經濟가 아니라 經濟의 效率性이 입증된 市場經濟여야 하며 市場經濟體制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經濟·社會的 衡平을 높이기 위해서는 社會保障制度의 擴充 등 政府의 積極的인 參與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民族經濟共同體의 窮極目標은 自由民主主義 統一國家를 樹立하는 것이며, 中間目標로서는 平和共存 및

치할 목적으로 國際聯合工業開發機構(UNIDO)와 협력하여 83件的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List of Project Profil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0. 7.

16) 北韓의 최근 第3次 7個年計劃에서의 力點事業分野로는 시멘트, 非鐵金屬, 水産物加工分野 등을 들 수 있고, 隘路事業分野로는 第3次 7個年計劃에서 目標을 하향 조정한 鐵鋼産業, 그리고 運送, 에너지産業分野 등을 들 수 있다.

民族經濟·社會의 同質化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1990년대 中盤期間은 南韓內部的 經濟先進化와 政治·社會의 持續的 發展與否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民族全體的으로는 南北韓間 民族共同體의 形成과 統一의 實現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의 目標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만큼 두 目標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상승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制度的 與件과 社會的 氛圍氣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南北韓間의 人口規模나 經濟力 隔差, 그리고 國際社會에서의 位置 등을 감안할 때, 統一問題의 解決을 南韓이 실질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統一을 무리없이 진전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南韓經濟의 持續的 成長·發展과 함께 社會內部的 結束力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南韓社會 內部的 結束力을 강화하고 社會階層間의 一體感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社會的 衡平의 提高가 요구되며 社會保障制度의 擴充과 生活基本需要의 保障, 所得과 富의 偏重 是正 및 企業의 所有集中緩和 등이 요구된다. 특히 物價의 安定을 통한 國民經濟生活의 安定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社會保障制度의 擴充·整備는 統一 以前 南韓內部的 社會的 葛藤要素를 제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統一이 이루어질 경우 北韓住民에 대

해서도 最低生活를 保障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分配構造의 是正과 企業倫理의 確立은 北韓住民에게 市場經濟體制의 優越性을 확인시킬 수 있는 基本的인 要素가 될 것이다. 특히 市場經濟의 經驗이 전혀 없는 北韓住民들로서는 企業의 行態가 왜곡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企業에 대한 不信은 市場經濟體制 自體에 대한 반발로 직결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國際競爭力의 強化, 國民貯蓄의 增大, 勤勞意慾의 鼓吹 등은 단순히 南韓經濟의 成長과 安定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經濟的 側面에서 統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南北韓의 對西方圈 交易商品 構造의 分析을 통해 南北韓間 交易을 확대할 수 있는 有望分野 및 品目を 발굴하는 동시에 經濟協力 有望分野도 검토하였다. 南韓의 立場에서는 北韓의 開放과 變化를 유도하기 위해 ‘孤立·封鎖’보다는 積極的

인 參與化政策(engagement policy)의 推進이 필요하다. 따라서 本稿에서 제시한 南北韓 交易 및 經協有望品目·分野를 중심으로 南北韓 공히 經濟的 實利를 추구하는 南北韓間의 經協을 추진할 경우 民族의 福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南北韓 民族經濟共同體 形成과 政治的 統一의 成就(1民族·1國家)는 民族的인 課題의 完結을 의미하기보다는 民族經濟의 새로운 跳躍을 위해서 새로운 出發線上에 서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對內的으로 모든 階層이 저마다의 役割에 충실할 수 있으며 모든 地域이 均衡된 發展을 이룩할 수 있는 바탕을 확립하는 한편, 對外的으로 國際社會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南北韓의 經濟的인 統合은 生産要素 및 生産物市場의 擴大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規模의 經濟에 따르는 利得과 分斷에 따르는 각종 費用의 節減과 制約要因의 解消로 ‘統一韓國’의 經濟는 새로운 發展 可能性을 갖게 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大陸研究所, 『北韓法令集(第3卷)』, 서울, 1990. 8.
 産業研究院, 『南北韓 經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 發展計劃(案)』, 1989. 4.

梁好民 외, 『南과 北, 어떻게 하나가 되나— 韓半島 統一의 現實과 展望—』, 도서출판 나남, 1992.
 延河清,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研究叢

- 書 57, 韓國開發研究院, 1986.
- , 『東北亞 經濟環境變化와 南北韓經濟協力』, 韓國開發研究院, 1991. 3.
- , 『南北韓 經濟關係發展의 目標와 政策課題』, 韓國開發研究院, 1991. 11.
- , 「北韓의 開放展望과 南北韓 經濟協力」, 『韓國開發研究』, 第13卷 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91 겨울.
- 李相禹, 『함께 사는 통일』, 도서출판 나남, 1993.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로동신문』, 평양, 各號.
- 中華人民共和國 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各號.
- 統一院, 『民族共同體 實現을 위한 段階的 政策 分析』, 1989.
- , 『北韓經濟動向 綜合評價』, 1992.
- , 『南北交流協力動向』, 1992. 1~1993. 10.
- 韓國開發研究院, 『南北韓 經濟關係發展을 위한 基本構想』, 1991. 9.
- 韓國貿易協會, 『南北交流實態調查』, 1990. 11.
- 韓弘烈,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5.
- 洪性國, 「北韓의 經濟開放現況과 그 展望」, 『共產圈研究』, 極東問題研究所, 1990. 5, pp.36~45.
- 朴三石, 「在日朝鮮人による合營事業の現況と課題 (上), (下)」, 『朝鮮資料』, 朝鮮問題研究所, 東京, 1990. 5, pp.36~45 및 1990. 6, pp.63~70.
-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90, 1991, 1992.
- Asian Development Bank,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Vol. XXII, July 1991.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Profile, China, North Korea, 1990-91*, London, 1991.
- ,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1991, 1992.
- Planecon, *Plan Econ. Report, USSR*, every issue, 1990~1991.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Investment Promotion Service, *List of Project Profil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0. 7.
- Yeon, Ha-cheong,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and Evolving Role of Korea in Continental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KDI Working Paper 911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December 1991.
- , *Enlarg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Status and Prospects*, KDI Working Paper No. 921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pril 1992.
- , *Practical Means to Improve Intra-*

Korea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KDI Working Paper No. 930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anuary 1993.

———, *Economic Consequences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KDI Working Paper No. 9303,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pril 1993.

〈附表 1〉 對北韓 搬入有望品目(1990년 SITC 5單位 分類基準)

〈B그룹〉

	主 要 品 目
農 產 物	감자, 완두콩, 시금치, 마늘, 당근, 고사리 등, 향료용·의료용·살균용식물, 누에고치 웨이스트 등
水 產 物	넙치류, 명태, 조기, 갈치, 게, 바닷가재, 새우, 보리새우, 조개류, 성게류, 훈제·염장한 어란, 김·미역 등
鑛 產 物	화강암, 천연흑연, 철강제조의 슬래크·드로스·스케일링 및 기타 웨이스트, 기타 회와 잔류물
食 料 品	주정 및 알콜성 증류음료
織 維	견사
窯 業	포트랜드시멘트
鐵 鋼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67321)*, 철도궤조
非鐵金屬	니켈, 아연, 텅스텐의 괴

註:〈B그룹〉은 北韓의 RCA>1, 南韓의 RCA>1이며 北韓의 TSC>0인 동시에 南韓의 TSC>0인 품목 중 SITC 0~4, SITC 6의 품목이며 北韓의 對OECD 輸出이 10萬달러 이상인 품목.

* 는 유사품목이 많아 구분을 위해 SITC번호를 명기한 것임.

資料:〈表 4〉와 동일.

〈C그룹〉

	主 要 品 目
農 產 物	호도, 후추, 뼈와 빨속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인모(human hair)
鑛 產 物	슬레이트, 천연 탄산마그네슘, 운모
化 學 品	탄화물(탄화칼슘 제외)
皮 革	전신모피 및 그 조각
織 維	금속드리사, 방적용섬유사
機 械	드릴링만(73143)*
電氣機器	축전기의 부분품(77869)*
雜 製 品	콜라아쥬 및 이와 유사한 장식판

註:〈C그룹〉은 〈A그룹〉과 같으나 北韓의 對OECD 輸出額이 10萬달러 미만인 품목.

* 는 유사품목이 많아 구분을 위해 SITC번호를 명기한 것임.

資料:〈表 4〉와 동일.

〈附表 2〉 對北韓 搬出有望品目(1990년 SITC 5單位 分類基準)

〈B그룹〉

	主 要 品 目
機 械	선반,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디지털처리장치, 자동자료처리 기계입력 또는 출력장치
通信機器	컬러텔레비전수상기, 라디오방송용수신기(76211, 76221), 녹음기와 음성재생기: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음성기록기, 확성기 등
電氣機器	축전지, 오븐·쿠커·조리판·보일러·그릴러 및 로우스터 등
電子製品	디지털식 모노리크 집적회로
雜 製 品	마그네틱테이프, 피아노, 낚시대·낚시바늘 등

註:〈B그룹〉은 南韓의 RCA>1인 동시에 南北韓 공히 TSC>0인 품목.

() 안의 숫자는 SITC 5단위 분류번호임.

資料:〈表 4〉와 동일.

〈C그룹〉

	主 要 品 目
食 料 品	빵·파이·케이크·비스켓 등, 비알코올 음료
化學製品	무스프탈산, 폴리프로릴렌, 플라스틱판·슈이트·필름·박 등(프로필렌 및 염화비닐 중합체의 것)
合 板	합판, 베니어패널
종이·필프	필기용·인쇄용·그래프용의 지와 판지, 벽지 및 벽피복재, 골판지와 판지제의 상자류 등
機 械	왕복피스톤식 내연기관(실린더 용량 1,000CC이상), 기계식 삽·굴착기·셔블로우더, 사진복사기
通信機器	텔레비전카메라, 송신기기
電氣機器	전류조절기, 동축케이블과 동축도체, 기타전기도체, 정지형변환기, 전열전선·케이블(77315), 내연기관의 시동용·점화용전기기기(점화플러그·배전기·점화코일·시동용발전기 등)
自 動 車	인원수송용차량(승용차), 대중수송용자동차(버스, 마이크로버스), 자동이륜차 등

註:〈C그룹〉은 南韓의 RCA<1인 품목이지만 南韓의 TSC>0인 품목 중 반출이 유망한 품목.

資料:〈表 4〉와 동일.

〈附表 3〉 南北韓間 委託加工交易 現況

(단위:달러)

	品 名	數 量	金 額		
			原·副資材 搬出	完製品 搬入	賃加工差額 ¹⁾
1991	곰인형	600dz	7,140	10,048	2,908
	학생가방	4,000개	13,406	22,880	9,474
小計	2件		20,546	32,928	12,382
1992	여성용 자켓	3,000매	20,966	33,000	12,034
	학생가방	4,000매	14,661	24,580	2,847
	배낭	7,000매	85,085	117,110	32,025
	나일론 가방	10,000매	32,646	40,600	7,954
	운동화갑피	12,000매	87,420	94,159	6,739
	면바지	10,000매	50,000	65,000	15,000
	남성용 셔츠	6,216매	32,094	38,029	5,935
	여성용 스웨터(반제품)	15,000매	6,570	27,570	21,000
小計	8件		329,442	439,976	110,534
1993.	남자자켓	30,500매	238,000	158,600	68,360
1~6	여자자켓	5,800매		30,160	
	남자바지	24,000매		117,600	
	남자바지	15,000매	63,260	99,990	36,730
	아크릴사	2,100kg	무환	무환	무환
	아크릴사	1,000kg	무환	무환	무환
	남성용 스웨터(반제품)	23,164매	47,136	67,444	20,308
	남자바지	11,700매	70,212	87,060	16,848
	남자바지	7,355매	30,353	37,510	7,157
	여자바지	3,180매	17,807	22,609	4,802
	남자자켓	4,544매	63,105	77,975	14,870
	여자바지	6,630매	29,208	36,900	6,792
	남자자켓	1,361매	18,888	23,354	4,466
	여자바지	3,390매	3,694	30,174	26,480
	남자바지	11,116매	65,418	82,703	17,285
	남자바지	14,900매	165,062	81,205	60,011
	남자자켓	18,800매		118,628	
	여자자켓	4,000매		25,240	
	남자바지	7,030매	6,815	65,175	58,360
	남자바지	13,000매	79,123	99,398	20,275
	남자셔츠	15,000매	129,527	143,775	14,248
	런닝셔츠	5,000매	3,990	4,789	799
	팬 티	5,000매	10,260	11,061	801
小計	18件		1,041,858	1,420,450	378,592
合計	28件		1,391,846	1,893,354	501,508

註: 1) (完製品 搬入額-原·副資材 搬出額)으로 표시한 賃加工交易을 통한 北韓의 附加價値 創出額.
資料: 統一院.